

## 농촌·도시간 인구이동의 실태와 영향\*

이 은 우\*\*

### <目 次>

I. 서론	미치는 영향
II. 농촌·도시간 인구이동의 실태	IV. 결 론 참고문헌
III. 인구이동이 농촌경제에	

### I. 서론

1960년대 이후의 한국의 경제는 외향적 공업화 과정으로 특징지워진다. 이 과정에서 경제구조가 농림어업위주에서 제조업, 서서비스업위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수반된 현상이 급격한 도시화 현상이다. 1960~90년 사이에 전체인구는 74%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도시인구는 362% 증가하고 반면에 농촌인구는 38% 감소했다. 이 사실은 경제개발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빠른 추세로 일어난 농촌·도시간 인구이동은 도시와 농촌 양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먼저 도시에서는 저임금수준에서 풍부한 양의 노동력이 공급됨으로써 고도성장의 밑받침이 되었으나, 여러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주택을 비롯한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은 미비한데도 많은 수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심각한 도시문

\*이 1992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지방대학육성)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반면 농촌에서는 다수의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면서 일인당 경지면적이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증가로 인한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반면에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젊은 층이 대거 이주하여 심각한 농촌노동력의 질적저하가 일어났다. 그리고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여 농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농촌의 서비스시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감소하여 교육, 의료 등 서비스업이 피폐하게 되어 농촌주민과 도시주민과의 삶의 질은 격차는 보다 확대되었다.

현재의 도시 및 농촌에서의 제반 문제점들은 농촌, 도시간 인구이동의 결과로 발생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점들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농촌, 도시간 인구이동현상 분석이 꼭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농촌, 도시간 인구이동의 실태와 그것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제 II장에서는 인구이동의 실태를 분석하는데, 이를 위해서 도시화의 과정과 인구이동 과정의 제반 특징을 분석한다. 제 III장에서는 인구이동이 미친 영향, 그 중에서도 농촌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 연구를 위해서 주로 이용한 자료는 먼저 경제기획원의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이다. 이 센서스 조사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이 보고서에는 전체인구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여러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어, 인구이동에 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제공해 준다. 다음으로 이용한 자료는 1983년에 경제기획원과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인구이동특별조사'의 원자료이다. 이 이외에도 기타 여러 자료를 이용하였다.

## II. 농촌·도시간 인구이동의 실태

### 1. 도시화의 진전

본 연구에서는 농촌·도시간 인구이동 현상을 다루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을 농촌과 도시로 구분하여 여러 분석이 진행된다. 도시의 정의로 사용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sup>1)</sup> 먼저 최소행정지역을 '도시'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인데, 이것에는 지방자

1) 大友篤, 嵯峨座晴夫 編(1983), pp. 8~9 참조.

치단체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인구규모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비농림업 인구비율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비도시지역 중에서 행정상의 중심지를 도시, 나머지를 농촌으로 분류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의 인구집중지를 행정구역과는 관계없이 도시로 분류하는 방식도 있다.<sup>2)</sup>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기로 하는데, 행정구역이 '市部'인 지역을 '都市'라고 정의하고, 행정구역이 '郡部'인 지역을 '農村'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sup>3)</sup>

한국은 1960년 이후의 經濟開發 과정에서 급격한 都市의 膨脹을 경험하였다. 도시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인구의 자연증가와 더불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농촌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도시의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표 1〉은 韓國의 農村 및 都市지역의 인구분포 상태를 나타낸다. 〈표 1〉을 보면 농촌의 인구비율은 1960년의 72.0%에서 1990년의 25.6%로 계속 감소하였다. 비율 뿐 아니라 절대인구를 보더라도 1960년과 1965년 사이에 17,992천 명에서 19,388천 명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감소해 왔다. 반면 도시인구는 1960년의 6,997천 명에서 1990년의 32,309천 명으로 계속 증가해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의 28.0%에서 1990년의 74.4%를 차지하게 되었다.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전체인구의 경우 1960~65년의 2.70%, 1966~70년의 1.79%, 1970~75년의 2.00%, 1975~80년의 1.53%, 1980~85년의 1.56%, 그리고 1985~90년의 1.42%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도시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은 1960~65년의 5.96%, 1966~70년의 6.86%, 1970~75년 5.37%, 1975~80년 5.00%, 1980~85년 4.29%, 그리고 1985~90년의 4.08%로 4%이상의 높은 추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농촌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은 1960~65년의 1.29%를 제외하고는 계속 陰의 부호를 나타내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도시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비단 한국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國民所得水準에 따라 모든 국가를 〈표 2〉와 같이 低所得 國家, 中所得 國家 및 高所得 國家의 유

2) 아시아 각국의 '도시'를 定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大友篤, 嵯峨座晴夫 編 (1983), pp.293~298를 참조할 것.

3) 이렇게 행정구역에 따라 농촌과 도시를 분류할 경우 실제 현상과는 다소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규모만 보면, 1990년의 경우 도시로 분류되는 삼척시가 41,673명, 점촌시가 47,802명인데 반해, 농촌으로 분류되는 이천읍이 49,985명, 용인읍이 47,944명으로 읍이 市보다 인구규모가 보다 큰 경우도 있다.

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모든 국가유형에서 1965~80년, 1980~90년 양기간 모두 도시 인구증가율이 평균인구증가율보다 높다.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인도 및 중국을 제외한 저소득 국가의 경우 1965~80년의 2.5%, 1980~90년의 2.6%로 높은 수준이며, 중소득 국가의 경우 1965~80년의 2.3%에서 1980~90년의 2.0%로, 고소득 국가의 경우 1965-80년의 0.9%에서 1980~90년의 0.6%로 낮아지고 있다.

연평균 도시인구증가율을 보면, 인도 및 중국을 제외한 저소득 국가의 경우 1965~80년에는 4.7%, 1980~90년에는 5.0%로 연평균 인구증가율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그리고 그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득 국가의 경우 연평균 도시인구증가율은 1965~80년의 3.9%에서 1980~90년의 3.4%로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러나 연평균 인구증가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고소득 국가의 경우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965~80년의 1.3%에서 1980~90년의 0.8%로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한국의 농촌 및 도시지역의 인구분포

(단위 : 천명, %)

		전체인구	농촌인구	도시인구
인 구 수	1960	24989.2(100.0)	17992.5(72.0)	6996.7(28.0)
	1966	29192.7(100.0)	19388.0(66.4)	9805.0(33.6)
	1970	31435.3(100.0)	18506.3(58.9)	12928.8(41.1)
	1975	34706.9(100.0)	17912.9(51.6)	16794.0(48.4)
	1980	37436.3(100.0)	16002.2(42.7)	21434.1(57.3)
	1985	40448.5(100.0)	14005.5(34.6)	26443.0(65.4)
	1990	43410.9(100.0)	11101.9(25.6)	32309.0(74.4)
연 평 균 증 가 율	1960~1966	2.70	1.29	5.96
	1966~1970	1.79	-1.11	6.86
	1970~1975	2.00	-0.65	5.37
	1975~1980	1.53	-2.23	5.00
	1980~1985	1.56	-2.63	4.29
	1985~1990	1.42	-4.54	4.08
	1960~1990	1.86	-1.60	5.23

\* 1960~1966=5.833년, 1966~1970=4.167년.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 1970, 1975, 1980, 1985, 1990.

이상의 경우에서 보면 저소득 국가와 중소득 국가는 고소득 국가에 비해 인구증가율과

도시인구증가율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인구증가율에 비해 도시인구증가율이 훨씬 높다. 이 사실은 저소득국가와 중소득국가에서 농촌에서 도시으로 인구이동이 상당한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소득국가의 경우 도시화가 거의 진행된 1980년대에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연평균 도시인구증가율과 차이가 별로 없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현상은 고소득국가보다는 저소득국가나 중소득국가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국가유형별 도시화추세

(단위 : %)

국가유형	연평균 인구증가율		연평균 도시인구증가율	
	1965~80	1980~90	1965~80	1980~90
저소득국가(인도및 중국제외)	2.5	2.6	4.7	5.0
중소득국가	2.3	2.0	3.9	3.4
고소득국가	0.9	0.6	1.3	0.8

자료 : World Bank, World Bank Report, 1992

〈표 3〉 주요국의 도시인구비율 추세

(단위 : %)

국 가	1990년 1인당GNP(\$)	1960	1980	1990
인도	350	18	22	27
중국	370	18	25	56
인도네시아	570	15	20	31
수단	480 <sup>1)</sup>	10	25	22
필리핀	730	30	36	43
멕시코	2,490	51	67	73
브라질	2,680	45	65	75
한국	5,400	28	55	72
사우디아라비아	7,050	30	67	77
미국	21,790	70	73	75
일본	25,430	63	78	77

자료 : World Bank, World Bank Report, 각년도.

주 : 1) 1988년도 값.

〈표 3〉은 주요 몇개국의 도시인구비율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소득국가인 미국과 일본은 1960년에 도시화율이 70%와 63%로 이미 상당히 도시화가 진척되어 있었고, 그 이후 도시인구비율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도시인구비율이 1960년에 18%이나 1980년에 25%로 증가하고, 개방화가 진행된 198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그 비율이 56%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수단 등 저소득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도시인구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반면에 멕시코, 브라질,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소득국가의 경우를 보면, 도시화도 급격히 진행될 뿐 아니라 도시인구비율도 높다. 이 중에서 한국의 경우를 보면 1960년 도시인구비율이 28%이었으나 1980년에는 55%, 그리고 1990년은 72%로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즉 한국은 세계에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나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2. 농촌·도시간 인구이동 과정의 특징

앞절에서는 한국에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었고, 그것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농촌·도시간 인구이동이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이 절에서는 농촌·도시간 인구이동과정에서 일어난 제반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로 한다.

〈표 4〉 인구이동 방향(5세이상)

(단위 : 천명, %)

연도 \ 이동방향	농촌-농촌	농촌-도시	도시-농촌	도시-도시	계
1965~70	649(14.8)	1,827(41.6)	387(8.8)	1,532(34.9)	4,395(100.0)
1970~75	563(10.9)	1,754(34.1)	558(10.8)	2,275(44.2)	5,150(100.0)
1975~80	558(7.3)	2,524(33.1)	681(8.9)	3,855(50.6)	7,618(100.0)
1980~85	469(5.6)	2,424(29.0)	889(10.6)	4,584(54.8)	8,366(100.0)
1985~90	368(3.7)	2,329(23.7)	743(7.6)	6,376(65.0)	9,816(100.0)

자료 : 〈표 1〉과 동일

지역을 농촌과 도시로 구분할 경우, 人口移動의 方向은 〈표 4〉의 경우와 같이 4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표를 보면 農村-都市, 都市-都市로의 이동에 비해 農村-農村, 都市-農村으로의 이동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즉 지역간 인구이동 중 이주지가 농촌

인 경우보다는, 이주지가 도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총인구 중 농촌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도시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비해 도시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같은 지역내의 인구이동, 예를 들면 서울시내의 인구이동 및 부산시내의 인구이동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인구이동 중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전체인구이동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지역을 농촌과 도시로 구분하여 지역간 移住傾向(migration propensity)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Mukhopadhyay에 의해 시도된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sup>4)</sup> 이렇게 하면 농촌이나 도시지역으로부터 유출되는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높은지 또는 농촌지역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높은지, 그리고 농촌이나 도시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농촌으로부터 유입되는 경향이 높은지 또는 도시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경향이 높은지를 규명할 수 있다.

먼저 (1)식과 같은 식을 정의한다. 여기서  $M_{ij}$ 는 유출지  $i$ 지역에서 이주지  $j$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수를 말하고,  $P_i$ 는 유출지  $i$ 지역의 인구, 그리고  $T$ 는 전체인구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지역을 농촌과 도시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유출지 2곳, 이주지 2곳으로 이주방향은 모두 4가지가 된다.

$$a_{ij} = \frac{M_{ij}}{\sum_i M_{ij}} / \frac{P_i}{T} \quad (1)$$

여기서  $M_{ij}/\sum_i M_{ij}$ 는  $j$ 지역으로 유입된 인구 중,  $i$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주지  $j$ 지역으로 유입되어 오는 인구들의 각 지역별 이주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즉 다시 말하면 이주지  $j$ 의 각 유출지별 상대적인 인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비율을 유출지의 인구비율로 正規化해야 한다. 다. 예를 들면 도시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 중에는 농촌출신도 있고 도시출신도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출신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농촌인구보다 도시인구가 많은 경우 도시로의 이주경향이 농촌주민보다 도시주민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이  $a_{ij}$ 는 이주지  $j$ 지역이 각 유출지 중 어느 지역에서 보다 선호되는가 하는 상대적인 선호도를 나타낸다. 즉 도시지역이 인구이동의 이주지로서 농촌주민에 의해 보다 선호되

4) S. Mukhopadhyay (1980), pp. 185~200 참조.

는가 또는 도시주민에 의해 보다 선호되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각  $a_{ij}$  가 1이 된다는 것은  $j$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인구의 각 지역별 비율이 전체인구에 대한  $i$  지역 인구의 비율과 같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j$  지역이 모든  $i$  지역에 대해 비슷하게 선호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a_{ij}$ 가 1보다 작으면, 이주지  $j$  지역이 여러 유출지 중 상대적으로 덜 선호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a_{ij}$ 가 1보다 크면 보다 더 선호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5〉는 기간별 이주경향을 나타낸다. 이 표를 보면 1985~90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는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이주경향이 1에 가까운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의 경우를 보면 농촌으로의 이주경향은 농촌출신이나 도시출신이나 모두 비슷하며, 마찬가지로 도시로의 이주경향도 농촌출신이나 도시출신 모두 비슷하다. 즉 농촌지역이 이주대상지로서 농촌주민이나 도시주민에게 비슷한 정도로 선호되고, 도시지역도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에게 이주대상지로서 선호되는 정도가 거의 같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1985~90년의 경우 농촌에서 농촌으로의 이주경향이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경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2)식과 같은  $c_{ij}$ 를 정의하기로 한다.

$$c_{ij} = \frac{M_{ij}}{\sum_j M_{ij}} / \frac{P_i}{T} \quad (2)$$

여기서  $M_{ij}/\sum_j M_{ij}$ 는 유출지  $i$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전체인구 중  $j$  지역으로 이주해가는 인구의 비율이다. 이 비율로만은 유출지  $i$  지역에서 각각의 이주지가 어느 정도 매력적인지 나타낼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 이주지 중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비율을 전체인구에 대한 각 도착지의 인구비율로 나누어 주면 각 이주지가  $i$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선호되는지 알 수 있다.

만약  $c_{ij}$ 가 1 이면 유출지  $i$  지역주민에게 이주지  $j$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평균정도로 선호되는 것이고,  $c_{ij}$ 가 1 보다 작으면  $j$  지역은  $i$  지역주민에게 상대적으로 덜 선호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c_{ij}$ 가 1 보다 크면  $j$  지역은  $i$  지역주민에게 상대적으로 더 선호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6〉은 각 기간별로  $c_{ij}$ 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1965~70년의 농촌주민의 농촌으로의 이주경향은 0.445, 도시로의 이주경향은 1.792이고, 도시주민의 농촌으로의 이주경향은 0.343, 도시로의 이주경향은 1.939로 나타나, 농촌주민과 도시주민 모두에게 농촌에 비해 도시가 이주대상지로 훨씬 선호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도시가 농촌에 비해 移住對



對象地로 선호되는 것은 모든 기간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러나 그 경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절대숫자는 별로 감소하지 않았지만,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주하여 도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인구가 전체 도시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 때문에 도시내 그리고 도시간 인구이동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0~85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는 농촌에서 농촌으로의 이주경향이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경향보다 높고, 도시에서 도시로의 이주경향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경향보다 높다. 이것은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은 도시에서보다 농촌에서 높고, 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은 농촌에서보다 도시에서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1980~85년의 경우 농촌에서 농촌으로의 이주경향과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경향이 거의 같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경향과 도시에서 도시로의 이주경향이 거의 같다.

〈표 5〉 이주경향(a<sub>ij</sub>)

	농촌-농촌	농촌-도시	도시-농촌	도시-도시
1965~70	1.064	0.924	0.909	1.108
1970~75	0.973	0.843	1.029	1.168
1975~80	1.053	0.926	0.961	1.055
1980~85	0.997	0.999	1.001	1.000
1985~90	1.295	1.046	0.899	0.984

자료 : 〈표 1〉과 동일

〈표 6〉 이주경향(c<sub>ij</sub>)

	농촌-농촌	농촌-도시	도시-농촌	도시-도시
1965~70	0.445	1.792	0.343	1.939
1970~75	0.471	1.564	0.382	1.659
1975~80	0.423	1.430	0.351	1.485
1980~85	0.468	1.282	0.469	1.281
1985~90	0.534	1.160	0.408	1.203

자료 : 〈표 1〉과 동일

이제 구체적으로 농촌의 인구가 어느정도 도시로 이주하였는가를 파악해 보기로 하자. 현재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량을 추정하는 데는 크게 3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sup>5)</sup> 첫째, 주민등록신고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현재 우리

5) 최 인현 외(1986), pp. 40~43 참조.

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전입 및 전출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이용하면 각 지역별 인구가동량을 파악할 수 있다. 전출입신고에 의한 인구가동 자료는 경제기획원이 매년 시도별로 분류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해 인구가동량을 파악하는 경우 전출입의 신고누락, 지연신고, 행정단위에서의 집계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소량의 제한된 정보밖에 없으므로, 이 자료에 의해 인구가동량을 파악하는 빈도는 매우 낮다.

둘째,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인구가동편)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인구센서스에는 5년전 거주지, 1년전 거주지, 그리고 출생지 등이 조사되어 있는데,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가동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거주지가 군부(농촌)이고 현거주지가 시부(도시)인 인구수를 파악하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센서스의 인구가동편에는 5세 이상의 인구만 조사되고 5세 미만의 인구는 제외되어 있어, 이 방법에 의해 인구가동량을 추정하는 경우 당연히 과소하게 추정된다. 이 방법에 의하면 도시로 이주한 자가 5년내에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자로 파악되지 않으며, 일단 도시로 이주한 후 5년내에 농촌으로 귀환이주한 경우에도 이주자로 파악되지 않는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여러번 이주하는 경우, 그 이동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셋째, 生殘率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성별, 연령별 인구자료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생잔율을 적용하여 추정인구를 계산하고, 이 추정인구와 실제인구와의 차이를 인구가동량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한 인구가동량 추정은 다른 방법보다는 비교적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방법은 기본 통계자료의 신빙성이 높은 경우에만 산출결과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이주자의 제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두번째 방법이 좋고, 인구가동량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는 세번째 방법이 좋다. 본 연구에서는 세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순인구가동량을 구하고자 한다. <표 7>은 권태환이 생잔율 방법 중 후진방법에 의해서 지역간 순인구가동량을 추정한 것을 가지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순인구가동량으로 구한 것이다. 여기서 농촌은 행정구역이 군부인 지역을 나타내고 도시는 행정구역이 시부인 지역을 나타낸다. 권태환은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도시인구가 증가한 것은 제외시켜 비교적 정확한 인구가동량을 추정하였다.<sup>6)</sup>

<표 7>을 보게 되면, 1960년대 후반 5년간 2,522천명, 즉 13.6%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1970년대 전반 5년간에는 1,873천명, 즉 10.5%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출하여 이주경향이 약간 감소하였다. 이것은 1970년대 전반에 활발히 전개된 새마을 운동

6) Tae Hwan Kwon, 각년도 참조.

과, 타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 정부의 농산물 가격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 후반부터는 다시 인구이동경향이 높아져서 1970년 후반과 1980년대 초반,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의 각 5년간씩의 인구유출비율은 16.1%, 13.3% 그리고 13.5%로 되었다. 이 추계에 의하면 약 25년간에 10,385천명, 매년 약 415천명이 순수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였다. 즉 이 숫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숫자를 제외한 순이주자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인구수는 이보다 상당히 높을 것이다.

〈표 7〉 생산율 방법에 의한 농촌에서 도시로의 순이주자수 추정

(단위 : 천명, %)

	1966~1970		1970~1975		1975~1980		1980~1985		1985~1990	
	유출 인구	유출 인구	유출 인구	유출 인구	유출 인구	유출 인구	유출 인구	유출 인구	유출 인구	유출 인구
경기	113	4.6	61	2.5	12	0.5	-116	-4.5	-30	-1.5
강원	155	10.5	185	12.8	257	21.2	166	16.6	197	24.7
충북	202	16.2	125	10.2	227	23.3	167	20.2	162	23.7
충남	362	15.3	224	9.6	290	13.3	250	12.7	59	3.8
전북	344	17.4	256	13.7	363	22.6	259	20.6	185	18.9
전남	485	15.5	440	15.2	541	21.2	364	16.2	363	20.9
경북	458	14.5	271	8.6	499	18.7	543	25.2	314	18.4
경남	389	15.9	292	12.8	383	19.6	201	11.3	287	20.2
제주	14	5.4	11	4.1	1	0.4	26	12.8	20	10.1
합계	2,522	13.6	1,873	10.5	2,573	16.1	1,861	13.3	1,556	13.5

자료 : Tai Hwan Kwon, 각년도

기간별로 약간의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절대적인 숫자로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의 경우가 농촌에서 도시로 많이 이주하였다. 경기도를 보면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의 순인구이동이 작게 나타난다. 〈표 7〉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1980~85년, 1985~90년에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전출자보다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전입자가 많아 농촌에서 도시로의 순인구이동량은 陰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이동의 상당수는 농촌으로의 귀환이주보다는 주택문제 등으로 도시근교의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은 미미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의 이주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자. <표 8>은 도시를 서울, 부산, 기타도시로 구분하여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각 지역으로 어느 정도 일어났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1965~70년의 경우 이주자의 44.5%가 서울로 이주하였으나 그 후, 그 비율이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 부산은 1970년대에는 전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비율이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기타도시의 경우 절대수뿐만 아니라 전체이주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표 8>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의 이주지(5세이상)

(단위 : 천명, % 단위 : 명)

이주지	1965~70	1970~75	1975~80	1980~85	1985~90
서울	813(44.5)	646(36.8)	775(30.7)	723(29.8)	559(24.0)
부산	214(11.7)	235(13.4)	355(14.1)	244(10.1)	187(8.0)
기타도시	800(43.8)	873(49.8)	1,394(55.2)	1,457(60.1)	1,583(68.0)
계	1,827(100.0)	1,754(100.0)	2,524(100.0)	2,424(100.0)	2,329(100.0)

자료 : <표 1>과 동일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많이 이주하였는가, 즉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의 제반 특성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자. <표 9>는 성별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모든 기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이주하는 숫자가 많다. 전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 중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75년 54.1%, 1975~80년 52.9%, 1980~85년 53.6%, 그리고 1985~90년에는 51.6%로 모든 기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이주경향이 높다.

<표 10>은 年齡階層別로 농촌의 전체인구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표를 보면 이주자의 연령층은 15~34세, 즉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다. 5세 이상 인구 중 15~34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85년 35.9%, 1990년에는 36.3%에 지나지 않으나,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移住者 중 15-34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85년 68.0%, 1985-90년에는 64.0%이다. 반면에 5-14세의 연령층이 5세 이상 전체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85년에는 24.1%, 1990년에는 18.9%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 연령계층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80~85년에는 15.2%, 1985~90년에는 16.3%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35세 이상 연령층이 5세 이상 전체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40.0%, 1990년에는 44.8%이었으나, 이 연령계층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85년 16.8%, 그리고 1985~90년 19.7%이었다. 이것은 1970~1975년, 그리고 1975~80년의 경우도 이와 거의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주자의 대부분은 생산성이 높은 젊은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표 9〉 성별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비율(5세 이상)

(단위 : %)

성별	1965~70	1970~75	1975~80	1985~85	1985~90
남자	48.5	45.9	47.1	46.4	48.4
여자	51.5	54.1	52.9	53.6	5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표 1〉과 동일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의 교육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표 11〉은 5세 이상 전체 농촌거주자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의 각 교육정도별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표를 보면 농촌 거주자들의 학력수준에 비해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의 학력수준이 훨씬 높다. 농촌거주자(5세 이상)의 불취학자(또는 미상) 즉 무학자의 비율을 보면 1985년 15.8%, 1990년 15.5% 이었으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 중 무학자의 비율을 보면 1980~85년 4.8%, 1985~90년에는 4.4%로 농촌거주자에 비해 매우 낮다. 반면에 고등학교이상 학력자가 농촌전체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85년 24.8%, 1990년에는 31.4%이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80~85년 50.6%, 1985~90년에는 61.7%로 농촌거주자에 비해 매우 높다. 이상에서 보듯이 농촌에서 상대적 학력이 높은 계층들이 도시로 많이 이주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농촌에서는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다.

결혼상태별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실태는 〈표 12〉에 나타나 있다. 이 표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와 농촌거주자 중에서 미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센서스에는 15세 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결혼상태를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 그리고 미상 등으로 구분하여 전체인구수와 이주자수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의 15세 이상 농촌거주자 중 미혼자가 30.2%이나 1985~90년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 중에서 미혼자는 45.2%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는 농촌거주자에 비해 미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연도도 거의 비슷한 상태이다. 이것은 연령별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실태와 같은 맥락이다. <표 10>에서 나타나듯이 15~34세의 젊은 계층이 많이 이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미혼자이다. 즉 젊은 미혼 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표 10> 농촌거주자와 이주자의 연령계층별 비율(5세이상)

(단위 : %)

연령	1970~75		1975~80		1980~85		1985~90	
	농촌거주자	이주자	농촌거주자	이주자	농촌거주자	이주자	농촌거주자	이주자
5-14	32.7	19.1	28.9	17.9	24.1	15.2	18.9	16.3
15-34	33.0	64.3	34.2	66.3	35.9	68.0	36.3	64.0
35이상	34.3	16.6	36.9	15.8	40.0	16.8	44.8	1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표 1>과 동일

<표 11> 농촌거주자와 이주자의 교육정도별 비율(5세이상)

(단위 : %)

교육정도	1970~75		1975~80		1980~85		1985~90	
	농촌거주자	이주자	농촌거주자	이주자	농촌거주자	이주자	농촌거주자	이주자
불취학·미상	20.2	7.1	18.4	5.9	15.8	4.8	15.5	4.4
국민학교	53.5	42.0	45.8	31.5	38.7	19.4	34.5	17.8
중학교	16.3	26.6	19.7	29.4	20.7	25.3	18.5	16.1
고등학교이상	9.9	24.3	16.1	33.2	50.6	50.6	31.4	6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표 1>과 동일

<표 12> 결혼상태별 농촌거주자와 이주자수(15세 이상)

(단위 : 명, %)

결혼상태	1970~75		1975~80		1980~85		1985~90	
	농촌거주자	이주자	농촌거주자	이주자	농촌거주자	이주자	농촌거주자	이주자
미혼	29.9	51.4	30.3	49.3	29.7	49.6	30.2	45.2
유배우	60.3	43.4	59.7	46.0	60.4	45.5	58.8	49.3
기타	9.8	5.2	10.0	4.7	9.9	4.9	11.0	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표 1>과 동일

### Ⅲ. 인구이동이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

#### 1. 이론의 재검토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농촌과 도시의 여러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장에서는 人口移動이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농촌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주장이 있다. 각 주장은 연구자가 대상으로 삼은 국가, 분석기간, 그리고 분석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

인구이동이 농촌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인구이동을 생산성과 소득수준이 다른 지역을 서로 균형시키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대부분의 발전도상국의 경우 농촌의 소득수준이 도시에 비해 낮고, 농촌지역에서 인구가 과밀하다. 이 경우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주하게 되면, 농촌의 일인당 토지비율은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일인당 노동생산성은 증가하게 된다. 즉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지역과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지역과의 격차가 점차 완화되게 된다.

이렇게 인구이동이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를 완화시켜 소득분배를 개선시킨다는 연구로 Adelman 과 Robinson(1978), Yap(1976) 등의 실증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Lipton은 인구이동이 농촌경제를 개선시킨다는 위의 주장이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립톤에 의하면 이런 주장은 1930년대 美國에서 남부의 흑인들이 북부와 서부지방으로 이주한 것이 인종간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한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실들을 설명하는 데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현재의 發展途上國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Lipton(1982)은 농촌, 도시간 인구이동이 농촌의 소득수준과 후생수준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립톤은 이주자의 특성, 이주비용, 인구이동의 파급효과, 송금, 그리고 귀환인구이동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주자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젊고, 남자,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은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다음으로 높은 이주비용과 도시에서의 정착비용때문에 빈곤층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많이 이주한다. 그리고 인구이동이 일어난 후 농촌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송금면에서는 각 국가마다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러나 농촌이 이득을 본다는 것은 거의 입증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귀환이주자를 보면 이들 중 일부는 도시에서 성공해서 귀환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의 경

우는 도시에서 실패해서 귀환하는 경우이다. 이상의 다섯가지 이유로 립튼은 농촌·도시 간 인구이동이 농촌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보다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李繁松(1990)은 인구이동이 생산성과 소득수준을 균형시킨다는 입장이나 Lipton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송은 농촌인구가 과소해짐에 따라 농촌임금의 상승으로 농업부문의 채산성이 악화된 것과 서비스 부문이 피폐한 것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즉 빠른 離農人口移動은 농촌의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농촌임금을 더욱 상승케 하여 농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키며, 또 빠른 離農人口移動은 농촌의 서비스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농촌의 서비스 부문을 더욱 피폐시킨다(이번송, 1990: 31). 이번송의 견해는 농촌·도시 간 인구이동이 농촌의 소득과 후생수준에 저해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립튼의 견해와 비슷하나 그러나 그 이유가 다르다. 이번송은 농촌·도시 간 인구이동이 농민 일인당 노동생산성, 또는 단위 면적당 토지생산성을 감소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는 인구이동을 생산성과 소득수준이 다른 지역을 서로 균형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입장과 동일하나, 결론적으로 이 입장은 농촌·도시 간 인구이동이 농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번송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

위에서 고찰한 여러 이론 중 일부는 농촌·도시 간 인구이동이 농촌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일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Rodgers(1983)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농촌경제와 전반적인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모형, 생산양식 그리고 인구이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제까지 농촌·도시 간 인구이동이 농촌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고찰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농촌·도시 간 인구이동이 농촌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립튼이 행한 것과 비슷하게, 항목을 이주자의 특성, 송금, 그리고 귀환인구이동 등으로 나누어, 각 항목의 구체적인 실태와, 그것이 농촌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립튼의 방식을 원용한 것은 현재 이용가능한 자료로 이 방식이 인구이동이 농촌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이주자의 특성

農村·都市間 人口移動이 농촌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



면 特性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주자의 특성 중 먼저 성별을 보면, 한국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표 9>의 성별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비율에서 나타나 있다. 모든 기간에서 전체 이주자 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다.

발전도상국의 경우 이주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Connell 등이 북부인도의 16부락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5세와 59세 사이의 여성인구는 표본부락의 인구중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도시로의 이주자 중에서 차지한 비율은 12%이었다. McEvoy가 아프리카의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농촌거주자 중 여자 100명당 남자는 60명에 지나지 않았고, 특히 35세와 44세 사이의 연령층은 여자 100명당 남자 37.9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J. Connell et al., 1976: 42).

여자의 이주경향이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도 다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다수 국가에서는 여성의 인구이동이 남성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다. 이것은 여자들이 도시에 쉽게 잘 적응할 수 있고, 영세규모의 상업 및 서비스 업체에서 여성노동력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필리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 이주자 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51년에는 51%이었으나 1965년에는 62%로 증가했다(J. Connell et al., 1976: 42).

부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男性勞動力이 女性勞動力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높다는 사실 자체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전반적으로는 농촌의 생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이주자의 연령층을 보면 이 실태는 <표 10>에 나타나 있다. 이것에 의하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는 15세와 34세 사이, 즉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농촌에서 도시로의 移住者가 젊은층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발전도상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Connell 등이 북부 인도부락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주자 중 15세와 24세 사이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였고, Gugler가 대만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이주자 중 76%가 15세와 24세 사이의 연령층이었다(J. Connell et al., 1976: 39).

移住者의 年齡階層이 15세와 34세 사이의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진행됨에 따라 농촌의 인구 구성은 14세이하의 유소년층과 35세이상의 장년층,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경우 인구이동은 농촌에 負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젊은 층은 기술혁신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세대인데, 이들의 유

출은 장기적으로 농업에서의 기술혁신을 저해시켜 농업의 생산성을 하락시킨다. 이 결과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제 이주자의 교육정도별 특성을 가지고 농촌, 도시간 인구이동이 농촌경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와 농촌 거주자의 학력별 비율은 <표 11>에 나타나 있다. 이 표를 보면 농촌 거주자들의 학력수준에 비해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의 학력수준이 훨씬 높다.

이렇게 교육정도가 높아질수록 인구이동경향이 높아지는 것은 대부분의 발전도상국가의 인구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의 인구이동상태를 보면, 이주경향은 교육정도와 正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도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이동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B. R. Chiswick, 1974: 22). 이처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경향이 높아지는 이유로 치스윅(B. R. Chiswick, 1974: 22-23)은 다음의 4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교육은 타지역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때문에, 그 결과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인다. 둘째, 고등교육은 새로운 장소로 이주해서 받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원래 거주자와의 관계를 약화시켜 이주경향을 높인다. 셋째,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보다 부유한 경향이 있는데, 보다 부유하기 때문에 이주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형태의 인적자본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즉 부유한 사람만이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넷째,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기술수준이 높다. 그런데 이주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은 기술수준과 관련이 없으나, 이주를 해서 얻는 수익은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경향이 높아진다.

농촌에서의 상대적인 高學力所持者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나면 농촌거주자의 학력수준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나 도시거주자에 비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유출하게 되는 경우, 농업의 生産性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농촌 소득수준과 도시 소득수준과의 격차는 보다 확대되게 된다.

<표 11>은 결혼상태별 이주실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농촌거주자에 비해 이주자가 미혼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15~34세의 젊은 층의 비율이 높다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 3. 농촌 · 도시간 송금

지역간 인구이동은 유출지와 이주지 모두에게 여러가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송금이다. 가족이나 친척 중의 일원이 도시로 이주하고 나면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적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송금면에 국한해 볼 때 농촌에서 도시로 유출되는 금액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입되는 금액보다 많다면 농촌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유입되는 금액이 유출되는 금액보다 많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sup>7)</sup>

본 연구에서도 이런 시각에서 송금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송금실태 파악에 이용된 자료는 경제기획원과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이 1983년에 조사한 '인구이동특별조사'의 원자료이다. 이 조사의 표본가구는 8,831호이고, 이 표본가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것이다. 8,831호 중 농촌거주가가구는 1,885호, 도시거주가가구는 6,946호이다. 이 조사에서 송금을 하거나 받은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기간은 조사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기간이고 현거주지에 이사온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는 이사온 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나타낸다.

〈표 13〉 농촌가구의 송금실태

(단위 : 건수, 천원)

대상지역	송금하는 것		송금받는 것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촌	117	62,272	126	48,355
도시	484	294,629	293	116,644
계	601	356,901	419	165,010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3 인구이동특별조사" (가구)의 원자료.

〈표 14〉 도시가구의 송금실태

(단위 : 건수, 천원)

대상지역	송금하는 것		송금받는 것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촌	555	214,307	800	509,305
도시	519	444,307	520	689,534
계	1,074	658,616	1,320	1,198,839

자료 : 〈표 13〉과 동일

7) 송금의 영향에 대해서는 H. Rempel and R. A. Lobdell(1978), M. Lipton(1982)을 참조.

〈표 13〉에는 농촌가구가 송금을 한 실적과 받은 실적이 나타나 있다. 농촌거주 가구 885호에서 송금을 한 것은 601건, 356,901천원이고, 송금을 받은 것이 419건, 165,010천원이다. 이것을 도시에 송금한 것과 송금받은 것만을 비교해 보면, 도시에 송금한 것은 484건, 356,901천원이고, 도시로부터 송금을 받은 것은 293건, 116,655천원이다. 즉 농촌가구의 경우 도시로 송금한 건수와 금액이 도시로부터 송금받은 건수와 금액보다 훨씬 많다.

〈표 14〉는 도시가구의 송금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거주 가구 6,946호가 송금을 한 것은 1,074건, 658,616천원이고, 송금을 받은 것은 1,320건, 1,198,839천원이다. 이것을 농촌에 송금한 것과 농촌으로부터 송금받은 것만을 비교해 보면 농촌에 송금한 것은 555건, 214,307천원이고, 농촌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은 800건, 509,305천원이다. 즉 도시가구의 경우 농촌으로 송금한 건수와 금액에 비해 농촌으로부터 송금받은 건수와 금액이 훨씬 많다.

〈표 13〉과 〈표 14〉에 나타나듯이 인구이동의 결과 농촌과 도시간 송금면을 고찰해 보면 농촌으로 유입되는 금액보다 유출되는 금액이 2배 이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송금면에 국한할 때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농촌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4. 귀환인구이동

이 절에서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귀환인구이동(return migration)이 농촌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농촌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와 함께 이주한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귀환인구이동도 농촌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분석하는 이용한 자료는 송금실태를 분석하는데 이용된 자료인 경제기획원과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이 1983년에 조사한 '인구이동특별조사'의 원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귀환인구이동이라는 것은 농촌(행정구역이 郡部인 지역)에서 태어나 도시(행정구역이 市部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5년이내에 다시 같은 농촌지역(동일한 郡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를 말한다. 5년이내로 제한한 것은 원자료에 이 경우에만 여러 사항들이 조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귀환인구이동을 농촌에서 출생한 사람이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5년이내에 농촌으로 다시 이주한 것으로 정의할 때, 조사대상 가구주 8,831명중 귀환이주자는 72명이었다. 반면에 5년이내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가구주는 모두 726명이었다. 즉 도시에서 농촌으

로의 귀환이주자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의 약 10분의 1 정도이다. 이 ‘인구이동특별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의 경우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비해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귀환인구이동현상은 극히 미미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귀환이주자와 농촌거주자와의 생활실태를 비교함으로써 주로 어떤 계층이 귀환이주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귀환이주자들이 농촌으로 귀환이주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가는 <표 15>에 나타나 있다. 귀환이주자 72명중 69.5%인 50명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머지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주는 각각 10%미만으로 소수이다. 농촌거주 비이주자 1,539명중 63.2%인 972명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귀환이주자들이 농림어업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약간 높다.

<표 15> 귀환이주자의 현거주지에서의 직업

(단위 : 명, %)

직업	가구주수(비율)
전문, 기술, 행정, 사무	3(4.2)
판매, 서어비스	7(9.7)
농림수산업	50(69.5)
생산, 운수, 단순노무	7(9.7)
비경제활동및기타	5(6.9)
계	72(100.0)

자료 : <표 13>과 동일

<표 16> 귀환이주자와 비이동 농촌거주자와의 생활상태 비교

항목	귀환이주자	농촌거주 비이주자	귀환이주자중 농업종사자	농촌비이주자 중 농업종사자
경지면적(평)	1,649	2,012	2,347	2,753
소유지면적(평)	1,481	1,520	2,100	2,122
생활비(원/월)	183,889	204,893	175,306	205,312
표본수	72	1,539	49	945

자료 : <표 13>과 동일

<표 16>는 귀환이주자와 농촌거주 비이주자와의 경지면적, 소유지 면적, 그리고 생활비 등을 비교하고 있다. 이 표를 보게 되면, 귀환이주자의 경우 농촌거주 비이주자에 비

해 호당 평균 경지면적과 소유지 면적이 작고, 그리고 생활비 지출도 작다. 다음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만을 서로 비교해 보면, 소유지 면적은 거의 비슷하나 경지면적과 생활비는 귀환이주자가 농촌거주 비이주자에 비해 낮다. 생활비가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나타내고, 그리고 농촌에서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경지면적 또는 소유지 면적이라고 할 때, 경지면적, 소유지 면적 그리고 생활비 등이 귀환이주자가 농촌거주 비이주자에 비해 낮다는 것은 귀환이주자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이 농촌거주 비이주자보다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사실에서 귀환이주자는 도시에서 성공해서 이주하기보다는 도시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이주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귀환인구이동은 농촌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 IV. 결 론

이제까지 한국의 농촌과 도시간 인구이동의 실태와 영향 등에 고찰해 보았다. 한국은 경제개발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대부분 국가의 경우 경제발전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났으나, 한국에서는 그 과정이 급속히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농촌과 도시간 인구이동이 도시와 농촌 모두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에서는 농촌에 미친 영향만 분석하였다. 이주자의 특성, 송금, 귀환인구이동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이 3가지 면만 고려할 경우 농촌과 도시간 인구이동은 농촌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과 농업간, 도시와 농촌간에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젊은 계층이 농촌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즉 농촌 주민이 도시 주민과 같은 소득수준을 얻을 수 있도록 가격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농촌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와 같은 수준의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 부문의 공급이 원활히 되어야 한다. 즉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과 함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성진근, 「韓國의 農村과 都市 地域間 人口移動」, 延世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博士學位 論文, 1988.
- 유경문, 「韓國의 인구가이동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1989년.
- 李繁松, 「韓國의 急激한 離村向都型 人口移動과 農村經濟」 『韓國開發研究』, 제12권 제3호, 1990년 가을.
- 崔仁鉉 外 編, 「人口移動과 社會經濟發展(人口移動特別調査 深層分析)」, 韓國人口保健研究院,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86.
- 大友篤, 嵯峨座晴夫 編, 「アジア諸國の人口都市化」, アジア經濟研究所, 1983.
- Chiswick, B. R. *Income Inequality(Regional Analysis within a Human Capital Framew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6.
- Connell J. et al. *Migration from Rural Areas(The Evidence from Village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 Kim, Hunmee(Hunmin), *An Analysis of Individual and Family Migration Behavior : The Case of Korea*, Ph. D. Thesis, Harvard University, 1988.
- Knowles, J. C. and R. Anker, "An Analysis of Income Transfers in a Developing Country(The Case of Keny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8, No2, April 1981.
- Kwon, Tai Hwan, "Estimates of Net Internal Migration for Korea 1955-70 (1970-75, 1975-80, 1975-85),"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5, 1978, 1983, 1988.
- Lee, B. S., *Urbanization in a Rapidly Growing Economy: An Analysis of the Income Distribution Aspects of Korean Urbanization Problems*, KDI, 1991.
- Lee, On-Jook, *Urban-to-Rural Return Migration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0.
- Lipton, M., "Migration from Rural Areas of Poor Countries:The Impact on Rural Productivity and Income Distribution," R. H. Sabot(ed.), *Migration and the Labor Market in Developing Countries*, Westview press, 1982.
- Mukhopadhyay, S., "Birthplace Migration in India:1961,1971," *Indian Economic Review*, Vol. 15,No. 3, April-June 1980.
- Oberai, A. S. and H. K. M. Singh,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ternal Migration (A Study in the Indian Punjab)*,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Rempel, H. and R. A. Lobdell, The Role of Urban-to-Rural Remittances in Rural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14 No. 3, April 1978.
- Rodgers, G., "The Impact of Rural-Urban Migration on Income Distribution," *Canadia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2), 1983.
- Schultz, T. P., "Lifetime Migration with Educational Strata in Venezuela:Estimates of a Logistic Model,"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30,No. 2, April 1982.
- Yap, L., Internal Migrationand Economic Development in Brazil,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90, No. 1, Feb 1976.